

국내에 리기다소나무 보급한 임학자 ‘식목수간’

(植木秀幹 : 우에키 호미키, 1882~1976)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리기다소나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나무다. ‘리기다’란 이름은 학명 *pinus rigida*에서 나온 것으로 ‘단단한 소나무’를 뜻한다. 미국 동부가 원산지인 리기다소나무는 미국에서는 보통 ‘피치 파인’, ‘하드 파인’, ‘블 파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통 한국의 전통 소나무보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성을 가졌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1907년 이 소나무를 한국에 보급한 공로자는 식목수간(植木秀幹)이라는 일본인 농학자로 밝혀져 있다. 이름이 바로 ‘식목’이니 그는 타고난 임학자라 할만도 하다. 물론 일본에 더러 있는 성일 따름이지만 하필 성을 ‘식목’으로 한 그가 일제시기에 한국 임학의 개척자로 크게 활약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 녹화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점

식목수간은 한국 임학계의 선구자이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임학박사 학위를 받은 현신규 박사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절의 은사였다. 1904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우에키는 1907년 조선에 부임해 왔고, 그 후 줄곧 조선에서 임학자로 살다가 해방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의 고향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는 식목을 ‘조선 녹화의 아버지’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한참 동안 우리나라의 산은 붉은 민둥산 천지였다. 개화기 서양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 찍은 사진을 보아도 조선시대 말기에 이미 한국의 산에는 나무를 구경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산에 토양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 육종하고, 널리 심어 보급하여 산을 점점 울창하게 덮게 된 것은 이런 임학자들의 덕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제시기에 이미 산이 푸르게 바뀌지는 못한 채였다. 아직 거국적이고도 체계적인 조림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

다. 또한 척박한 토양에 대한 기초 조사도 부족하고, 거기 알맞은 나무 종류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지식도 턱없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말부터 시작된 리기다소나무 등의 식목 활동은 1970년대 들어 열매를 맺었다.

1942년 남한의 나무총량(입목축적)은 6천500만^m³이었는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산은 더욱 험박해 되어 1952년에는 3천600만^m³로 줄어들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전기나 석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다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지 못하게 엄금하고 있었지만, 산림을 보호할 치안력이 크게 모자라던 시절이었다. 1955년 한해 동안 국내 산림의 17%가 아궁이 속 땔감으로 사라졌다고 어느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그런 상황이 10년만 계속되었다면 전국은 민둥산이 되고 산림녹화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의 산이 푸르게 되기 시작한 전환점으로는 아무래도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들어야 할 것이다. 1964년부터 35개 도시에 민수용 석탄을 공급하면서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진행됐다. 화전을 정리하고 4월 5일 식목일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했다. 전국의 공무원과 학생들도 식목행사에 참가하게 할 정도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 1973년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를 연결해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6년 만에 달성됐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은 푸르름을 거듭하여 세계의 모범 녹화 성공국이 되었다. 2006년부터는 아예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킬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실질적인 녹화는 1970년대에 완성되었지만, 그 시작은 바로 일제 시기의 우에키 같은 임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전통이 해방 후 우리 임학자들과 정치력이 결합하여 크게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8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임학자·교육자로 활약

식목수간은 1882년(명치 15) 7월 26일 일본 시코쿠(四國)의 에히메(愛媛)현의 오즈(大洲)에서 태어났다. 일본은 큰 섬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코쿠란 규슈(九洲)의 동쪽, 혼슈(本洲)의 남쪽 섬을 말한다. 에히메현은 그 섬의 서쪽에 있는데 1954년 그의 고향 오즈는 정에서 시로 승격되어 있다. 1904년 도쿄제국대학 입학실과를 졸업한 식목은 궁성 현립농학교의 교사로 일하다가 1907년 조선에 부임했다. 바로 그해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따라 일본은 모든 분야에 일본인 관리를 조선 정부 모든 부서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식목 역시 조선 정부의 농림학교 교사 겸 임업 기술자로 초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까지 38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그는 임학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많은 일을 했다. 지금도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학캠퍼스의 중앙길 일대에는 미류나무, 이팝나무, 섬잣나무, 꽃개오동나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여럿이 바로 우에키 교수가 직접 심었거나 그가 부임해 온 후 심었던 것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1926년 당시 교정에서 자라는 나무 170종을 골라 수록한 '수목원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수목원 소개 책자로 수원 캠퍼스에 있는 나무들의 이력서를 알려주어 한국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언제 들어왔는지 조사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는 자료다. 지금도 서울대 농학캠퍼스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모두 47과 101속 185종류의 나무가 '수목등록 카드'에 기록되고 그 배치도가 그려져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고 한다.

우에키 교수는 1907년 조선에 건너와서 1945년 일제 패망 때까지 살았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1921년부터 약 2년 동안은 미국에서 유학한 기록도 있고, 또 일본 규슈제국대학의 강사를 지낸 것으로도 나온다. 특히 그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버지인 스티튜션을 졸업하여 임학으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학위 취득은 1928년 3월이라 밝혀져 있다.

일본식물분류학회의 학회지에는 그의 논문이 5편 정도 실려 있다. 이 학회는 초기에 이름이 '식물분류지리학회'라 되어 있었는데,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조선의 삼림식물대', '조선 상록 활엽수의 북한대에 대하여', '조선 서해안의 상록활엽수 분포한계'

같은 제목들이 보인다. 또 그는 '리기다소나무의 일반'과 '조선의 적송과 그 개량에 관한 조림상의 처리'(1928)라는 책도 저술했다.

1933년 그는 캐나다에서 열린 태평양학술회의에 참석한 일도 있다. 그는 학술회의에 다녀 온 후 서울에서 강연한 일이 있는데, 동아일보(1933. 12. 9)가 조선박물학회 학술강연회에서 "태평양 학술회의를 통해 본 학술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여러 잡지 등에도 그의 글이 남아 있다. '조선과 만주', '조선 휘보', '조선' 등의 잡지에 쓴 그의 글은 대중 계몽적인 것들이다.

193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수로 생도과장을 담당하고 있던 그는 학교 관사에서 살았다. 그리고 당시 그는 같은 고향에서 여학교를 졸업한 부인 행지와 사이에 5남 1녀를 두고 있었다. 1910년생인 장남 수수는 지바(千葉)의과대학을, 그리고 1913년생 차남 정수는 도쿄제대 의학부를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그 아래는 고등학생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리기다소나무 도입 100년, 천덕꾸러기로 전락

전쟁이 끝난 다음 그는 바로 귀국하여 고향에 있는 에히메대학 농학부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식물과 나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지역의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나무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1976년 1월 12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제 내년이면 그가 리기다소나무를 도입한 지 꼭 100년이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지난해 신문 보도를 보면 국토를 푸르게 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리기다소나무가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고 한다. 척박한 땅과 가뭄에도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전국 37만ha에 리기다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제 30년 이상 된 상태에서 더 자라지도 않고, 베어 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으려 해도 쓸모가 없는 나무여서 별채비용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리기다소나무를 관상용으로 개발해 사용하는 조경기도 있다. 원산지 미국동북부에서 지름 1m에 키가 25m로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훌륭한 조경수로 이용될 수도 있을 듯하다. 한국의 소나무는 잎이 둘씩 달리지만, 리기다는 셋, 때로는 넷씩 달린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세잎소나무'라고 부른다. 한자 이름으로 '미국삼엽송', '강엽송', '경엽송' 등이 있기도 하다. ㉮